

장려상

박주하 중학교 1학년



2025년 4월 18일 금요일 날씨 맑음



오늘 인터넷에서 수질오염에 관련된 뉴스를 보았다. 온갖 플라스틱 쓰레기와 비닐, 빈칸, 담배꽂이 등이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었다. 수질, 환경 정화 봉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노력이 감사하게 느껴졌다. 우리 가족도 예전에 바닷가 쓰레기줍기 봉사를 한적이 있었는데 큰 봉지가득 쓰레기를 주웠음에도 여전히 많은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었다. 쓰레기로 인해 수중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어서 안타까웠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위해 쓰레기를 더 줄여야겠다.

[출처: 문화뉴스 2025, 3.12 노한나 기자 (아름다운 우리자연) 소중한 물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

다
함
다
집
쓰
쓰
나
가
하
다





박주하 중학교 1학년

2025년 5월 16일 금요일

날씨 맑음. 약간비



라 며칠전, 선생님께서 아침일찍 동네주변으로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다. 환경에 관심이 많던 나는 바로 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아침일찍 등교하기 전에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
 집계와 비닐봉지를 들고 놀이터, 공원, 주차장, 상가건물, 버스정류장을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주웠다. 쓰레기 하나를 주울때마다 환경을 지킬 수 있어서
 벅듯했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이 버린 쓰레기가 미끄럼틀 안, 차밑,
 나무 밑 등 구석구석에 있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한 봉지
 가득 채운 쓰레기 봉지를 맛있는 고자 한 봉지와 바꾸었다.
 환경도 보존하고 난 후, 먹는 고자는 더욱 꿀맛이었다.
 다음에도 쓰레기 줍기 봉사에 참여해야 겠다.





2025년 6월 5일 목요일

날씨 쟁쟁함



학교에서 환경사랑 실천 ↓



공
금
나
이
유
무
해



장려상

박주하 중학교 1학년



2025 년 7 월 2 일 수요일

날씨 맑음



일!

한

오늘은 매주 수요일마다 있는 우리아파트에 분리수거 날이다. 이번엔 특별히 엄마를 도와 분리수거를 하기로 했다. 집에서 가득찬 재활용 봉투를 킁킁대며 들고나오니 쓰레기 봉지가 5개나 나왔다. 힘겹게 분리수거장으로 가서 분리수거를 했다. 플라스틱 통에는 다른 샴푸통과 병뚜껑, 물통등을 쏙쏙 넣었다. 비닐류에는 다른 쓰레기들에서 라벨을 뜯어 삭삭 넣었고, 박스들은 테이퍼를 제거한 뒤, 톡톡 종이 포대 안에 넣었다. 캔류에는 우리가 맛있게 마셨던 음료수 병을 넣었다. 마지막으로는 미리 모아놓은 일반쓰레기 버렸다. 그렇게 하나하나 분리수거를 하나갈때마다, 가벼워지는 우리의 발걸음을 느꼈다. 다음에도 환경을 위한 분리수거를 잘하고, 쓰레기도 줄여야겠다.

장
수

일!

2025년 7월 12일 토요일

날씨 맑음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우리집은 탄소중립 포인트를 모으고 있다. 탄소중립포인트란 전기, 수도, 가스 같은 에너지를 절약하면 정부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돌려주는 것이다. 실천 방법도 간단하며 자동으로 관리된다. 이번년도에 우연히 알게 되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 포인트를 모으기 위해 엄마께서는 장을 볼 때 비닐봉지 대신 에코백을, 아빠께서는 재활용 할 때 또 나와 동생을 사람이 없는 곳엔 불을 꺼 ...



장려상

박주하 중학교 1학년

2025년 7월 28일 일요일

날씨 흐림

환경보시 '용인 풍경'

용인 자원순환가게 처인드리미봉사단과 함께해요~

처인드리미봉사단 '봉사의 일상'... 작은 행동이 주변을 바꾸는 일, 큰 보람

처인드리미봉사단은 매주 화·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용인 중앙동행정복지센터 후면 주차장에서 자원순환가게를 운영 중이다. 이곳은 시민들의 자원 재사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처인드리미봉사단의 시작은 2017년 처인구 자원봉사 지원센터가 개소하면서부터다. 구청 지원센터에는 10여 명의 자원봉사 코치들이 배치되어 주민들과 상담을 진행해 왔다. 이후 지난해 3월 12명의 상담 코치가 모여 '처인드리미봉사단'을 출범했다. 특히 이들은 환경 분야 봉사에 힘써왔다. 관내 청소년 및 청년들과 진행하는 플로깅, 시민들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OX 퀴즈, 쓰레기 분

리 배출 홍보 및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처인드리미봉사단 김명희 회장과 봉사단원은 "작은 도움에도 진심으로 감사해주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며 "봉사활동을 하면서 해맑게 웃으며 감사하다고 인사해 주시는 어르신분들과 주민분들을 보면 큰 힘이 되고, 이 활동이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처인드리미봉사단은 "앞으로 시민들에게 환경보호,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자원 재생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는 것을 목표로 꾸준한 봉사할 계획이고 끊임없이 실천할 것이다"라는 계획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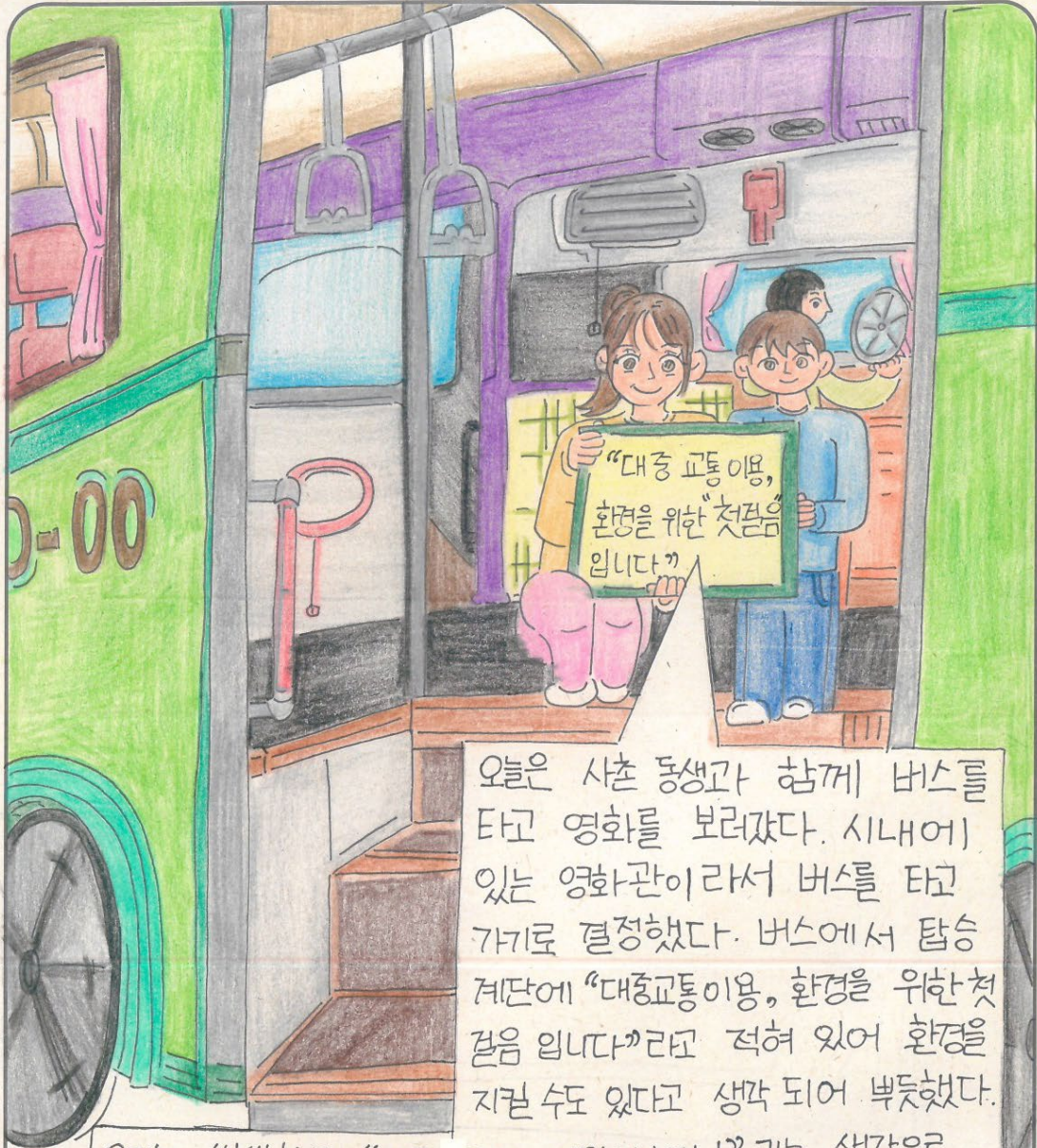
용인소식7, 2025년 7월 호



오늘 나는 신문을 보다가 "용인 자원 순환 가게"라는 문구를 발견했다. 기사를 읽어 보니 용인 자원 순환 가게는 관내 청소년 및 청년들과 진행하는 플로깅, 시민들과 함께하는 OX퀴즈,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교육 등을 진행한다고 했다. 또한 시민들이 자원을 모아오면 자원봉사자 분들이 이를 측정하여 다회용품 및, 그만큼의 보상을 지급해 준다고 했다. 자원봉사자님들과 함께 환경도 지키며 물건도 비싼 좋은 경험이기에 참여해보고 싶다.

2025 년 8.월 1 일 금요일

날씨 맑음



오늘은 사촌 동생과 함께 버스를 타고 영화를 보러갔다. 시내에 있는 영화관이라서 버스를 타고 가기로 결정했다. 버스에서 탑승 계단에 "대중교통이용, 환경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라고 적혀 있어 환경을 지킬 수도 있다고 생각 되어 뿌듯했다.

우리는 씩씩하게 "대중교통도 이용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버스에 탑승했다. 버스에 사람이 없어 버스 기사님과 대화도 했다. 그렇게 대화하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다. 버스전용 도로도 있어서 차보다 빨리 도착한 것 같았다. 앞으로도 탄소중립, 환경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겠다.

오
관
망
출



박주하 중학교 1학년

2025년 8월 11일 월요일

날씨 비

흘러내린 기름 한 방울, 무너지는 바다생명

오늘 나는 바다오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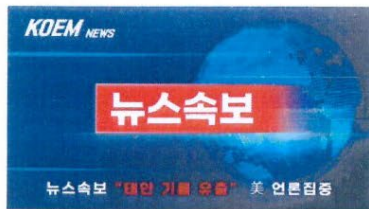
관한 기사를 읽었다. 그 기사에는 바다에 기름이 흘러들어 많은 생물들이 고통받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사진 속의 바닷새는 깃털이 기름에 젖어 날지도 못하고, 물고기들은 죽은 채 물위에 떠 있었다.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쉽게 눈을 떼 수 없었다. 만약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바다를 더럽힌다면 언젠가는 깨끗한 바다를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어업을 하는 어민들의 삶도 무너지고, 결국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해산물도 오염될 수 있다. 앞으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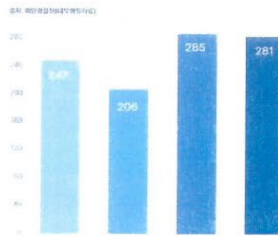
우리를 위해, 바다를 위해서라도 바다를 아끼며 바다를 위한 행동을 실천하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

뉴스에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도 바다는 다쳤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큰 사고만 기억하죠. 하지만 바다는 매일 아픔니다. 작은 사고들이 조종히 반복되고 있어요.

최근 2년 연속 280건 이상 기록



작년 한 해 281건의 오염 사고가 있었어요. 하루에 한번 꼴은 바다에 기름이 흘렀다는 뜻이죠. 눈에 띄지 않아도 반복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출처: 해양환경공단 2025. 8. 11. 17:00